

4만여명 감염 여부를 전화로...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구멍

광주시·전남도, 이름·주소·전화번호 명단 확보 조사 나서 신도·유증상 부인하면 끝...예비신도 1만명 제외도 문제

광주시와 전남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천지예수교회 신도를 대상으로 전화 전수조사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다양한 이유를 들어 조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신천지가 제공한 신도자료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는 것이다. 핵심신도를 제외하는 등 명단훼손이 충분히 의심되기 때문이다. 또 신천지는 평소에도 신도라는 사실을 숨기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도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호흡기나 발열 증상을 제대로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광주·전남에서 활동중인 1만명 안팎의 예비신도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불안 요소로 꼽힌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도 경기도처럼 신천지를 대상으로 강제 역학조사 등을 통해 예비신도를 포함한 정확한 신도명단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기록된 신천지 신도 명단을 넘겨 받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신천지 정식 신도는 총 4만991명으로 추정된다. 광주는 북구 오치·송하동 2개 교회 소속 2만6715명, 전남은

목포·여수·순천·광양 지회 소속 1만 4276명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북음방·선교센터에 다니는 교육생인 ‘예비신도’는 광주 5378명, 전남 4118명 등 1만여명에 육박한다. 신천지는 예비신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코로나19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광주지역의 경우 예상보다 적은 2만2880명의 명단만 제출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본청·사업소 직원 1400여명을 총동원해 신천지 신도 2만 288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증상 유무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앞서 전수조사를 마무리한 대구의 사례를 참고해 직원들에게 일률적인 질문지 등을 작성·배포하고, 직원 1명당 20명 안팎의 신천지 신도를 배정받아 확인 작업을 하도록 조치했다.

시는 전수조사에서 호흡기 또는 발열증상 이 있는 유증상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자가격리하고, 자택을 방문해 검체를 채취한 뒤 진단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신도에 대해 선 2차례 연락을 시도한 뒤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사 사실을 알리고, 연락 두절자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추적·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신천지 신도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모든 직원에게 보안유지 각서를 받고, 신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해 정보 유출시 담당 직원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직원들에게 이름과 주소는 빼고, 전화번호만 제공된다.

전남도는 22개 시·군과 공동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화 전수조사를 통해 신천지 신도의 감염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일단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전화를 끊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광주시는 지난 19일 광주에서 코로나 19에 감염된 신천지 신도가 첫 발생한 이후 신천지측으로부터 감염 가능성이 있는 신도 명단을 받았으나, 이 중 6명은 아직까지 신도라는 사실 자체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속성으로 전화면접 교육을 받은 시·도 공무원들이 일괄 매뉴얼에 따라 4만여 신도를 대상으로 전화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증상 여부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받아내고 판단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조사 대상자들이 유증상 답변에 따른 추가 조사를 통해 자신의 신분과 동선 등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증상 여부를 숨긴다면 전화 조사 방식만으로는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역학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인적 공간 신천지 광주교회 26일 오전 광주 북구 신천지 베드로 지성전(광주교회) 주변이 인적이 드문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신천지 교회·시설 58곳 강제폐쇄 행정명령 발동

전남도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신천지 관련 시설 58곳을 강제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해 신천지 교회 및 관련 시설 일체에 대해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집회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시장·지사 등에 권한이 부여된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1호와 제49조 1항 2호에 따라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명령은 시설의 일시적 폐쇄와 집회 금지를 포함

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적 규정이 있다. 김 지사는 “도민들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서는 현재 도내에 14개 시·군에 교회와 교육센터 등 58개 시설과 1만 4000여명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58개 시설에 대한 방역을 완료했으며, 현재 교단 협조 아래 자체적으로 시설 폐쇄가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도민 가운데 대구 신천지교회 방문자와 접촉자 총 41명에 대해 2주간 격리중이 있다. 현재까지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남에서는 첫 번째 확진자가 17일 완치돼 퇴원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어 지역사회 차단을 위해 방역의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주 관내 92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방역 및 폐쇄조치를 마친 광주시는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강제폐쇄 행정명령’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평온한 일상 밀어낸 바이러스 악몽



김은영의 '그림 생각'

(302) 우울

오래전 개봉했던 영화 ‘피아니스트’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포스터는 주인공 공이 나치를 피해 간신히 목숨을 건진 후 마트뜨린 모습을 포착한 이미지다.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모두 다 사라진 폐허의 도시에 혼자 덩그러니 놓인 장면은 내게 가장 처절하게 고독하고 불안한 순간으로 각인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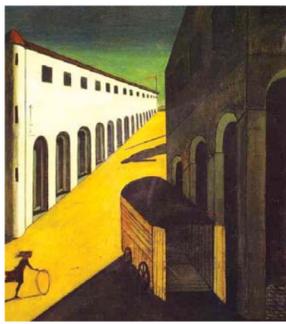
코로나 19의 무서운 습격으로 지난 주말 도심지가 텅 비었다. 뉴스의 중심이 된 도시 풍경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고요해서 영화 속 악몽 같기만

하다.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밀어낸 바이러스가 지금 온 나라를 한없이 우울하게 한다.

무서운 그림은 아니지만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휘둘리게 하는 그림이 있다. 이탈리아 출신의 조르조 데 키리코(1888-1978)의 ‘거리의 신비와 우울’ (1914년 작)은 건물, 거리, 사람, 기차의 화물칸, 그림자 등 모든 것이 숨을 죽이고 있는 듯 하지만 무슨 일이 급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긴장이 가득한 그림이다.

과장되고 어긋난 원근법, 화면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물에 드리운 긴 그림자,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는 하늘과 거리의 노란 색조가 사실적이면서도 비현실감 가득한 분위기다. 소실점을 향해 가면서 굴렁쇠를 굴리고 있는 소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의 긴 그림자가 불길하고 위협하다.

니체와 쇼펜하우어의 영향으로 형이상학적 심리를 회화에 표현하고자 했던



키리코 작 '거리의 신비와 우울'

키리코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초월적인 분위기는 달리, 마그리트, 에른스트, 이브 탕기 등 초현실주의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0세기 초 유럽을 휩쓴 전쟁의 광기 앞에서 예술가들은 ‘예술은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예술을 해야 하는’ 시대적으로 모순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을 뛰어넘어야 했을 것이다. 위기의 한기운에 서서 현실을 극복해야 하는 오늘 우리들의 심정 또한 절박하고 때론 암담하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문 대통령, 정은경 본부장에 “계속 힘 내 달라” 격려 메시지

전남여교 졸업한 광주 인재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정은경(사진) 질병관리본부장을 향해 격려와 안쓰러움과 격려 메시지를 보냈다.

26일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정은경 본부장을 거론하며 “좀 허탈하지 않을까”라며 “보통 이런 상황이면 맥이 빠지면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맡은 정 본부장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한 달 넘게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허탈하지 않을까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코로나19의 불길한 상황이 잡힐 듯하다가 새로운 상황에 접어들어 다행인 것”이라며 “또한 일이 잘되다가 안 되는 쪽으로 흐르는 데 대해 ‘맥이 빠지는데 이런 표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정 본부장을 비롯해 코로나 19와 사투를 벌이는 질병관리본부에 특별한 메시지를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남대문시장을 방문, 흥삼애를 직접 구입해 질병관리본부

에 보낸 바 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정 본부장과 통화에서 “너무 고생하셔서 그동안 일부러 전화를 자제했다”며 “지금까지 이렇게 잘 대응해온 것은 질병관리본부 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야당 대표로서 질병관리본부를 찾아 당시 질병예방센터장이었던 정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인연을 맺었다.

정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차관급인 질병관리본부장에 발탁됐다. 특히, 정 본부장은 광주 출생으로 전남여교,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광주의 인재로 꼽힌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신세계안과 10인의 안과전문의 분야별 진료

- 노안 백내장
- 스마일 라식·라섹
- 녹내장
- 당뇨 망막병증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